

연중 제 14 주 일

기도서 P. 384 A해

제1독서(자카 9, 9-10절)
제2독서(로마 6,3-4. 8-11절)
복음(마태 11, 25-30절)

숲 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이수현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님의 저주와 감사

박 창 신 신부

우리는 항상 그 무엇을 바라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만끽하려 한다. 또 그것에 매달리어 진리를 외면하고 불안과 허탈을 자초하기도 한다. 매달리어 만끽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 또 그것은 우리를 장님으로 만든다. 가치의 혼돈을 빚은 오늘날 이 세상 것이냐? 진리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놓고 복음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선교활동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비인간화된 율법관과 그분의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과의 갈등이었다.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배와 자비심인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다. 선포되어진 하느님 나라를 받아 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들이 그분의 고통이고 어려움이였다. 더욱이 선포된 하느님 나라를 기적으로 증거까지 하셨으나 당신 고향은 물론 고라진과 베사이다에서 까지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입으라고 저주하셨다(마태 20장11). 심판날이 오면 소돔땅이 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마태 20. 24)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아빠(abba)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감사의 이유는 하느님 나라를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 아씨의 한없는 선하심과 이를 바라고 받아들여진 소수의 우리 즉 사회에서 소외된 어부, 세리, 죄인,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를 안다는 사람과 똑똑하다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마태 20. 25) 여기에서 어린이는 연약하여 힘없는 것을 강조하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고 받아들이는 수용성(受容性)을 말한다.

바로 사도 역시 유대인들은 기적적 요구하고 그리스도 인들은 지혜(智慧)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고린도 1. 22-26). 그런데,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모두 쫓자들이고, 이들만이 예수님과 그의 선포를 바라고 있으니 하느님의 힘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천과 가치관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배금사상(拜金思想)으로 그분의 하느님 나라 선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그분의 선포를 받아들이기보다 이 세상것에 온통 몸과 마음을 쏟는 피확한 흐름속에서는 과연 몇사람이나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또 하느님 나라 선포 자체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하느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은 선포되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선포된 기쁜 소식을 받아 들이지 않으므로써 님의 저주대상이 될까? 아니면 감사의 대상이 될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 아씨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삶과 이 세상을 만끽하려는 삶과는 어느것이 옳바른 삶일까? (김계 천주교회 주임신부)



아파아트(我破我投)

...其一(正義의 밀거름)

현대판 이두(吏讀)로 아파아트(apartment)를 我破我. 投로 적어보자. 「나를 내던져 나를 없앴」이라고 옮기면 무리일까? 예수께서는 일찌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 24)고 가르치셨다.

이처럼 자신을 죽여 정의로운 세상을 펴보자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선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여기<한국 천주교 정평위>의 소리가 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귀를 좀 빌리자. 심장과 손도 좀 빌리자.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4월 8일에 천주교 주교단이 "그리스도교 노동운동에 가해지는 부당한 박해를 지적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참된 봉사와 형제애"를 강조한 성명서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되, 특히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우기로 하였읍니다.

도시산업 선교회의 수난 외에, 가톨릭 노동청년회(J.O.C.) 출신 노동자들의 수난만 보아도, 지난 4월1일자로 동일방직에서 가톨릭 노동청년회 출신 노조지부장 이종각 이하 123명이 집단 해고를 당해 현재 생계의 대책이 없이 가두에 방황하고 있으며, 또 태평특수, 경도직 물을 비롯한 여러 기업체에서 가톨릭 신자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이러한 박해속의 노동자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그리스도교 노동운동을 지원하며, 그 성명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모금에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했으니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요한 12, 25) 아파아트에서 살아야 한다.

숲 정이 산책



「축! 애기신부 탄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

지 학 순 주교

다음 글은 지난 5월 16일 동대문 천주교회에서 열린 신구교 합동 기도회에서 지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강론의 발췌문임(원주회보 39호에서 옮김)

여기서 나는 교황 바오로 6세가 로마 모이스 타운에서 말씀하신 "평화를 위한 정의로운 활동"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참된 질서인가? 노예제도가 참된 질서가 될 수 있는가? 공정한 법, 합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이 없는 곳에 참된 질서가 있는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억압적인 질서가 참된 질서인가? 이들 거짓 질서에는 평화라는 고상하고 정통적인 말을 쓸 수 없다. 그러한 질서는 질서가 아니라 폭력인 것이며, 타파되어야 할 질서인 것이다."

경제 발전만 한다고 좋은 나라가 되나요. 도의와 인간의 양심이 바로 잡혀야지요. 이치가 통하고 원리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지요. 100억원짜리 교과서 사건, 40억원짜리 비로사건이 터진 때가 어제 같은데, 또 80억원짜리 고구마 사건(5월 6일자 신문참조)이 터졌으니 서정쇄신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도대체 국민에게 보상하는 일이 없이 흐지부지 하다마니 국민은 도대체 뭐니까? 국민은 그저 손해만 보고 말아야 하니 아무리 정부가 부정을 적발했다 해도 국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부정에 대해서도 항의만 하면 빨갱이 라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번 고구마 사건만 하더라도 벌써 제작년에 가톨릭 농민회에서 이 부정을 알고 항의했으나 빨갱이라고만 몰아치다가 3년이 지난 이제와서야 부정을 색출했다니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리 농협 조합장이라도 돈 100만원 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데 수십억원이 유출돼서 몇년이 지나도록 무사했다니 무슨 대단한 후막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략)

협박과 탄압, 매수와 분열조장의 비열한 방법으로는 제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정정당당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구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면은 일시적으로 통할지 모르지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제보니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와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와 역량은 점점 더 확산 축적되고 있습니다. 비록 빛은 빼앗겼으나 내일의 민주, 민족 언론을 이끌어 갈 동아 조선의 투위 기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분들은 이 나라의 참 언론의 주인공들입니다.

□ 교육용·가정용·교회용·연주용

당신을 위한

씨니 (SUNNY) 전자 울건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대리점 :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세 광 음 악 학 원

□ 매 포 : 염 규 철(요셉) 2-6111

장마에 공소가 더 셉니다

오 덕 영(요셉)

十 주의 평화

교구내 신부님과 교형자매님들, 저희 상지원 237명 신자들은 형제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마에 공소가 더 셉니다. 공소에만 나가 보면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아무도 반겨주는데없이 청춘의 한때를 병마와 싸우다가 어언 38세의 독신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약한 저에게 이 고통의 십자가는 사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환자들을 따뜻하게 돌보아 주신 형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런대로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몸은 색어질 나환자이나 양심과 마음은 건강하며 뭇뭇하고 주님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욱 격려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공소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의 정성을 본당 신부님께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믿지 못하시면 본당신부님께나 술정이 편집실에 전해주시시오. 그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사랑의 은혜를 기도로 갚겠습니다.

- 6월 20일...순창 성태수 신부님...1만원
- 6월 21일...중앙 익명 교우...1만원 (편집실 보관)
- 6월 22일...상지 청년회 공동작업 기금...10만원
- 6월 29일...중앙 방지겨 3회...7만원

비록 장단은 빼앗겼으나 길거리에 나서면 진리를 탐구하는 청년, 학생들이 줄을 이어 가르침을 받는 퇴직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법정에서 노우트를 들고 법정에서 따르오는 학생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 민족 교육을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양심을 팔고 "바보들의 행진"이나 하는 교수들이 민주 민족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붓끝을 놀려 글을 더럽히며 영달을 도모하는 사이비 문인들의 삽보다는 차라리 못 살아도 진실을 추구하는 자유 실천 문인 협의회의 문인들이 우리들의 고난의 기록을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법정에서, 감옥에서 양심과 정의를 외치는 수백 수천명의 청년 애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생존권을 요구하며 생명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노동자 농민들이 있습니다.

알맹이 빠진 거품집편인 당국의 여러가지 기관보다는 전자 알맹이들만이 뭉친 이 씨앗들이 새싹을 낼때까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원주 교구장, 인성회 총재주교)

☆ 교우 여러분의 세무 대책 상담 환영합니다

- 업무 ☆세무고문·장부조직·기장지도·제세신고대리
- ☆법인설립·청산·결산에 따른 세무업무대리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기타업무대리

세무사 임 종 을(태오)

- 사무실 : 전주시 경원동 3가 34-7(세무서 후문 앞)
- 제일고시학원 2층(전화 ② 2646)



주교님의 편지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6월 8일 출국하신 주교님으로 부터 범석규 신부님(주교대리)과 이수현 신부님(사목국장)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있었다. 출국시 캐나다행(유장훈 신부님과 공아영 신부님 방문)이 어렵다 했는데, 그것도 잘되었다는 편지가 배신부님을 통해 편집자에게 알려졌다.

+ 주의 평화

그렇게도 기다리는 비는 왔는지요? 이곳 유럽에서는 대체로 오히려 비가 안왔으면 하는 편이니 실로 세상은 불균형 투성인듯 합니다.

오는 16일 12시 20분에는 30분간 교황성부를 알현했습니다. 한국의 첫 차치교구인 우리 교구에 대하여 예상외로 많은것을 알고 계셨으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여행의 제1목적은 일단 성공적으로 성취된듯 하니, 교구내 제위 신부님들, 그리고 모든분들의 기구의 덕택인가 생각하며,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욱 교구와 가까워지는 마음의 필요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곳 법선배, 김기수 신부님들 잘 있으며, 마침 시험도 끝나고 방학에 들어가는 참라서 더욱 가볍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문지인 독일 북부지역의 유관기관들과의 방문도 매우 호의적인 분위기 속의 면담들이었습니다. 특히 미시오(Missio), 미제레올(Misereor) 단체와의...

3일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보충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매우 바쁜, 또 고된 일정으로 피로가 연속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좀 여유있는 일정이 될 것으로, 특히 건강관리에 최대 유의하겠으니 과히 염려마시고 계속 많은 기구의 도움을 청합니다.

두루 두루 안부 전해주실 바라옵고 이만 줄입니다.

1978. 6. 16. 오후 김 재 덕

+ 주의 평화

공경하을 주교관 신부님들에게 교구청엔 별고없을 것으로, 또한 신부님들의 충실한 보살핌에서 교구내에도 다 무고할 것을 확신하며, 안심하고, 해외사목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체로 매우(예상외로) 좋은 성과리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1. 6월 16일에 가진 교황님의 알현은 예외적인 특전으로 매우 진지했으며,
 2. 포교성성(布教聖省)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선 한국교회 현실을 새롭게 인식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3. 오늘, 오지리 부인회 창립 30주년 행사에서도, 이곳 대통령 내외분 참석의 국제적인 규모와 의미있는 모임에 한국주교단의 대표로서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제법 뼈가 있는 축사였던지 최고의 갈채를 받은셈이니, 역시 하나의 성과로 생각되니...
- 모두가 교구내 신부님, 수녀님, 교형자매들의 열렬한 기도의 힘으로 여겨지니 계속 많은 기도를 부탁하며, 나도 매일 배신부님과의 합동미사에서 항상 교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1978. 6. 23 김 재 덕

□ 배신부님의 편지

여행이 잘 되었습니다. 주교님이 캐나다 비사 얻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인사를 보냅니다.

6월 21일 배 신 부

요심이 (258) 김병오

요즘센타에서 무슨일이 있었니?



잠깐만! 당국에알아보고



전주에서신부님들이 광주에서대학생들이



데모한사실을친구에게 말해도 됩니까?



建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体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글라라)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박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대리점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 5614
전주시 금암동 710~11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급기사 모집)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숲정이 발송사고...누구에게 누가 용서를 빌까요?**
지난주 숲정이가 어떠한 사유인지 몰라도 인편으로 전하는 전주 시내를 제외하고 우송이 늦었습니다. 다만 우체국에 가서 찾아온 고산과 신대인만은 예외였습니다.
- **해고당한 가톨릭 노동청년들을 돕습니다.** 성금을 보내 주시면 <숲정이>에서 심부름 하겠습니다.
- 1. **사회정의 평화 기원미사:** (10일<월>) 오후 8시. 중앙성당
※ 전주 시내 본당은 당일미사를 없애고 이 미사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시기 바람
- 2. **혼인 문제 상담일**(10일<월>, 교구청 응접실에서)
- 3. **대신학생 끈페렌시아**(13<토>~16일<일>). 장소: 고산 한대골
- 4. **중·고등학생 연합회 제 9 차 지역대회**(27<목>~30<일>), 무주 앞섬
※ 참가비 600원(기념품 증정), 많은 참석 바람
- 5. **중·고등학생 연합회 지구장 회의**(오늘 오전 10시 반, 가톨릭센터 회의실)
※ 하기 수련회 계획 심의...지구임원의 전원 참석 바람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홍	목
보좌	신부	정	승	현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복	석

- 1. **구리아 월례회:** 오후 2시(강당)
- 2. **삼지회 월례회:** 12일<수> 오후 6시(강당)
지참물: 성가집
- 3. **성모유치원 방학:**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4.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5. **구 성경 반납** 바랍니다(군인들에게 보냅니다)
- 6. **새 영세자들** 신심단체 가입하세요
- 7. **영세 사진** 찾아가주세요(사무실)
- 8. **예비자교리** 당분간 쉽니다
- ◇ **지난주 불헌금:** 166,505원

- 2. **첫 영성체만 특별교리:** 매주 토요일
8월 6일 첫 영성체식 예정
- 3. **반상회:** 5반(11일) 6반(12일) 7반(13일)
8반(14일)
- 4. **신축헌금 현황**
4반 이강원 5,000원, 5반 김한기 50,000원, 공수천 6,000원 신이근 10,000원 이영소 7,000원
- **지난주 불헌금:** 43,910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3.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 4. **감사합니다:** 성모회에서 선종기 1대 기증
- **지난주 불헌금:** 58,13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한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보좌	신부	유	유	성
사도	회장	유	석	중

- 1. **자모회:** 10시미사 후
-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 3. **성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 4. **대건신용조합 직원피절:** 오늘 오후 9시까지
- 5. **유종환 신부님** 군산 팔마분당으로
- 6. **지도분담 가. 예비자교리:** 수-이베드로 신부
금-김스테파노 신부
나. 젊은이 성가대: 이신부님
다. 교리교사회: 권수녀님
- 7. **성당 의자기금** 신입 마감: 신입총액 1,638,800원
- 8. **위도환 하기 피서단 모집:** 3면 참조
- **지난주 불헌금:** 13,07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사도	회장	유	제	상

- 1. **강덕행(요셉) 신부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 2. **예비자 교리:** 수요일-오후 7시 30분
일요일-오전 11시
- 3. **가정의 주소**를 알려 주세요
- 4. **신축헌금 미납되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세요
- 5. **미사 참례**에 성가집 정서는 가져오는지요
- **지난주 불헌금:** 90,54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 상관성당 후편 하천
- 2. **축세례:** 7월 5일(35명)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 3. **오늘 1일교장:** 김국원씨 형제
다음주 1일교장: 이상기씨 형제
- **지난주 불헌금:** 140,38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협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 1. **선교주일:** 10시 미사후 L.M. 간부회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	신부	문	정	현
사도	회장	채	수	현

- 1. **봉사활동:** 미사후 성당주변 대청소 실시
전신자 솔선 참여 바람
- 2. **교무금 납부요망:** 본당 살림이 아주 어렵습니다
- 3. **어린이 교리:** 우리 본당 교리교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마음놓고 맡기십시오
- 4. **CELL 조직:** 남녀 중·고생은 CELL을 통하여 주위를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 5. **교무금 납입자**
최수현(5만원) 전영자(3만원) 조홍우(2천원)
박마리아(5백원) 조형숙(2천원) 최성진(2천원)
장준봉(3천원) 장영식(2천원) 이미자(5백원)
장시몬(2만원) 정창현(1만원) 소병희(2천원)
김성녀(2천원) 박기문(3천원) 최분옥(4천원)
양유순(3천원) 김복남(6천5백원) 김복순(2,500원)
박봉수(2천원) 정세창(1만원) 장용주(3천원)
- **지난주 불헌금:** 32,680원